

일본 신화: 우가야후키아에즈의 계보

우가야후키아에즈와 부인 다마요리는 슬하에 4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성인이 된 네 아들 중 막내가 성장한 형들을 데리고 일본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휴가(지금의 미야자키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며 지금의 나라현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막내가 국가를 세우고 스스로를 진무 천황이라 칭하며, 일본 최초의 통치자이자 신의 계시를 받은 자임을 선언했습니다. 해신을 모계로, 하늘과 산의 신인 부계로 혈통을 이어받은 진무 천황은 땅을 지배할 운명이었습니다. 이후 진무 천황은 지금의 제 126 대 천황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통치자의 역할을 해왔던 천황의 계보에서 초대 천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야자키에는 진무 천황을 모시는 신사를 비롯해 진무 천황과 인연이 깊은 신도(神道)의 유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장소가 미야자키 신궁입니다.